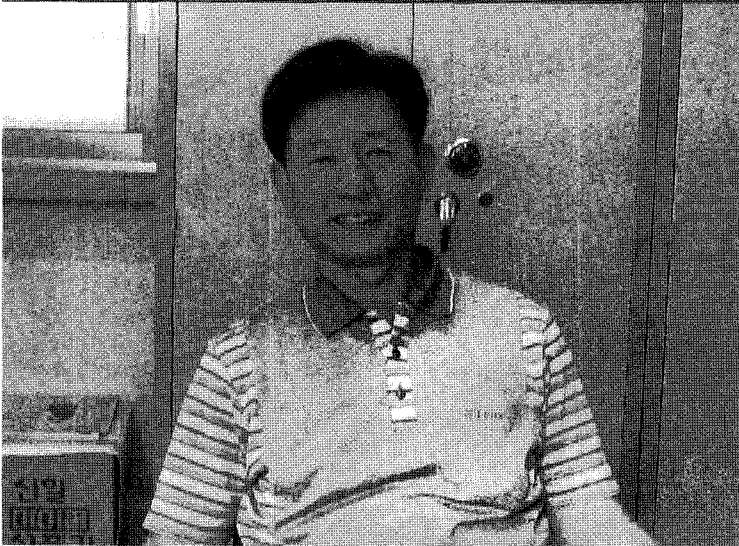


## ■ 지부탐방 ■

# 성숙된 양돈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 군위지부



◀ 군위지부 정장규 지부장

취재 : 이소영

군위지역의 양돈인들은 자체적인 친목단체로 모임을 가져오다가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차츰 면단위로 나뉘어 소모임 형태로 분할 되어왔었다. 그러던 중 국내 양돈산업 발전과 군위지역 양돈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군위지역 양돈농가들이 다시 모여 2002년 10월 군위지부를 설립했다. 정장규 지부장이 흩어져 있던 회원을 모두 모으는 데는 꼬박 1년여 가량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회의를 마련하고 지부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분산된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쏟은 결과, 면단위로 나뉘어졌던 군위지역의 전 양돈인들이 모두 군위지부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 뜻으로 마음을 모은 전체 군위 양돈인의 단합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 지부공동사업을 통한 회원 혜택 도모

“군위지부는 회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장규 지부장. “지부 운영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고 지부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 역시 많지 않지만, 현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다양화 시키고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생산비 절감을 위한 OEM사료 이용

군위지부는 OEM사료의 공동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생산비 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OEM사료는 사료공장을 가지지 않는 사업주체가 사료공장에 배합비율을 제시하여 생산의뢰 후 고객에게 공급하는 형태로서 저렴하게 사용자 구미에 맞는 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군위지부는 D사료의 공장라인을 이용해 군위지역 양돈농가의 현실에 맞는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강화된 OEM사료를 공동 생산하여 군위지역 양돈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위지역 양돈농가는 찻먹이 사료기준으로 kg당 50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돼지의 출하 역시 군위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동아LPC로 공동출하하고 있다. 이렇게 공동출하를 통해, 운송비 절감과 함께 가격동향에 맞춘 지역단위의 출하로 지역 양축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 ■ 현재는 해양배출하고 있으나, 대책 마련 중

현재 군위는 주된 양돈분뇨 처리를 해양배출로 해결하고 있다. 해양 배출업체가 양돈장 곳곳을 돌며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한다. 군위는 다행히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은 아직까지 없었지만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향후 7년간 해양투기량을 40%수준까지 감축하겠다



▲ 건강한 사양법 등을 논의중인 군위지부 회원들. 오른쪽부터 정장규 지부장, 서신명, 김화중, 홍여홍 회원. 이들은 깨끗한 사육 환경조성 등 기본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는 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중이다. 또한 일부 해양배출업체에서 가축분뇨 수거비를 인상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어 더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장규 지부장은 군위축협 비료공장과 합작할 방법을 구상중이다. 분뇨를 분리하여 분은 비료공장으로, 뇨는 톱밥 재처리 후 활용하거나 액비저장고에서 발효시켜 농경지로 환원할 방법 등을 모색 중이다.

“양돈농가는 이제까지 분뇨처리를 위해 정화처리 시설 또는 퇴·액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착오와 손실액이 쌓여 감에 따라. 실망감과 끝나지 않는 고민거리만 쌓이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양축가들 역시 노력해야겠지만, 정부차원에서의 아낌없는 연구와 지원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라며 정장규 지부장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의 차단방역

“군위지역은 농장이 밀집되지 않아 PED,



▲ 오른쪽부터 정장규 지부장과 김현숙 간사

돈열, 돼지오제스키 등의 청정지역이라 할 만하다”며, “비도 적당히 오고, 온도도 적당하여 군위는 북 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정장규 지부장. 또한 군위지부는 매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통해 지역의 방역공무원 등과 연계한 방역활동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자발적인 농장 방역만이 양돈산업을 지킬 수 있다는 정장규 지부장은 “방역은 군위지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임과 동시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현안 관련 세미나 개최로 지부 활성화

군위지부는 두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와 연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질병, 방역에 대한 주위와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서울대학교 박봉균 교수의 PMWS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지부회원 100%가 참여하여 교육을 듣는 한편 열띤 질문이

이어지는 등 질병·방역에 대한 군위지역 양축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역, 사양 등 양축가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기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정장규 지부장은 밝혔다.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부의 단합과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장규 지부장을 비롯한 총 10명의 운영위원회는 지부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지부운

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위지부의 회원들은 기술습득 세미나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임원회의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부분이 양돈세미나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라는 정장규 지부장은 “모든 사양관리, 질병 등 양축가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 목적의 세미나를 통해 지부단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 여유롭지 않은 지부운영이지만 품족한 마음으로 지부행사 손색없어

중앙회비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자발적인 협찬금을 통해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다소 빠듯한 지부살림이지만 지난 4월 24일 약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축산인 한마음 대회”에는 군위지부 회원들의 힘을 모아 후원을 하였으며, 전 회원이 참가하여 지역 양돈인들의 단결된 모습을 통해 성숙된 양돈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매년 중앙회에서 펼치는 「이웃사랑 돼지

군위지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합하여 양돈현안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정장규 지부장.

“앞으로 브랜드사업을 실현시켜 군위양돈의 명성을 널리 떨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기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도 100만원씩 작은 성의를 표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회원들의 마음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며 군위지역 양돈인이 하나로 통일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보람된 일은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화합이 최고의 보람, 브랜드사업의 꿈이 있어 더욱 가슴벅차

“지금의 군위지부가 있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장규 지부장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지역 양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돈협회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양축가들이 깨닫고 있었지만, 대체로 고집이 세다는 양돈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부를 재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양돈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군위지부가 재

탄생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부가 설립된 이후로는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합하여 양돈현안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는 정장규 지부장.

“앞으로 3년 내에 지부자체에서 운영하는 AI센터를 군에서 보조지원을 받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정장규 지부장은 밝혔다.

현재는 올해부터 군 보조를 받아 정액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미비한 수준의 보조이기는 하나 첫발을 잘 디딤으로써 브랜드사업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군위지역의 전 농가가 앞으로 설립할 예정인 AI센터를 통하여 고품질의 돼지정액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돼지들이 품종개량 및 품종통일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모돈 통일만 이루고 나면 군위지역의 브랜드사업은 곧 실현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돈**

본지캠페인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합시다.**